신년사

국제적인 최고의 방재기관이 되는 길은 창의적이고 적극적이며 전문가적 책임을 다해야

정축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한해는 '95년도와 같은 끔찍한 대형사고는 없었지만 남북한간에 아직도 냉전 구도적인 북한의 잠수함 침투에 의한 도발이 있었습니다. 한편, 경제적으로는 경기순환적인 요소와 경제 구조의 취약점으로 인하여 저성장과 국제수지의 적자 누적을 면치 못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청년기의 높은 경제성장을 누려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모두는 알게 모르게 고도 성장에 익숙해진 나머지 인플레와 확장주의에 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해부터는 우리 경제의 기조가 고속성장에서 감속성장으로 바뀌는 징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고도성장 단계에서 안정성장 단계로 전환되는데 맞추어 팽창이나 확장보다는 내실을 기하고, 경제의 각 부문을 효율화하여 총체적인 국제경쟁력을 키우는 일입니다.

우리 협회를 둘러싼 환경도 크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부터 본격화될 보험요율의 자유화와 보험판매제도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경쟁시대를 맞이하여 우리 협회의 기능에 대한 인식이 새로워져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 보험 및 방재산업의 발전과 경쟁력의 기틀이 되는 위험진단 및 평가, 조사연구, 리스크에 상응한 요율체계의 제시, 방재 및 방화관련 제품에 대한 과학적인 시험과 국제적으로 공인된 인증업무, 화재예방을 위한 계몽, 방화 관련자에 대한 교육 등 그 하부구조를 담당하고 있는 우리 협회의 기능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이와 같이, 새시대를 맞이한 우리의 사명과 역할에 대한 재평가에 비추어 새해 주력하여야 할 협회의 경영방침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우리 협회는 국내에서는 물론,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최고의 방재기관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창의적이고 적극적이며 또한, 전문가적인 철저한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에 임하도록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각국에서 국제표준화기구(ISO)의 품질보증과 인증규격을 요구하는 새로운 기술적 무역장벽이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 협회의 방재시험연구소가 최근 국제적인 인증시험기관으로서 여러나라로부터 공인된 점은 참으로 뜻깊은 일이라 하겠습니다.

둘째, 우리 협회가 공적 기관이지만 범세계적인 경쟁시대에 있어서 양질의 방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서는 우리 협회업무와 직·간접으로 연관되는 사원사, 유관기관 그리고 고객에 대하여 긴밀한 유대를 유지함으로써 이 점을 이해시키고 또, 우리 협회의 방재서비스의 내용에 대한 홍보에 일층 더 노력할 것입니다.

셋째, 범세계적인 고도의 경쟁시대에 있어 우리 협회가 살아남을 뿐 아니라 더욱 발전하기 위하여서는 직원 각자가 스스로 자기 자질 향상을 위해 연구하고 노력하도록 하며, 특히 간부들을 중심으로 후진 양성을 위한 지도와 교육에 각별히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끝으로, 지난 한해 동안 협회업무에 대해 많은 성원을 보내주신 「방재와 보험」 애독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새해에는 협회가 여러분이 기대하는 방재전문기관으로 더욱 정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1997. 元旦

한국화재보험협회
이사장 **이 창 규**